

배
앗
긴

세
월

8
년

김종대

※김종대님은 부산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김해 과창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했다. 이후 교직을 퇴직하고 서울에서 일본어학원을 경영하던중 1974년 민청학련 사건시 소위 '인협당 재건위' 건으로 구속되어 혹독한 고문과 조작 끝에 민청학련의 배후로 몰려 15년의 징역을 선고받고, 8년을 감옥에서 보냈다. 현재는 사월혁명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각본대로 써야 하는 중앙정보부의 취조

1974년 5월 1일 저녁 8시 경 중앙정보부 요원에게 연행되어 남산분실에 도착하자 곧 민청학련 학생들에게 돈을 얼마나 주었느냐고 추궁받으며 몸수색을 당했다. 그리고 밥 한 그릇을 얻어 먹고는 곧장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5월 4일 아침부터 중앙정보부 남산분실로 끌려가 고문을 받았다.

윤계장(윤종원)에게 침대 몽둥이로 개 맞듯이 얻어맞고 “죽어서 나가지, 살아서는 못나간다”는 등 공갈협박을 당한 뒤 손중턱 외 3명으로부터 지하실로 끌려가 물고문을 받았다.

나체로 손발이 묶인 채 양팔 속에 양다리의 무릎을 끼운 뒤 무릎 안쪽으로 쇠막대를 넣어서 두 사람이 들어 두 책상에 걸치면 머리가 밑바닥으로 처지면서 마치 통닭구이같은 모습이 된다. 코에 수건을 덮고 커다란 주전자에 물을 가득 담아 콧구멍 쪽으로 물을 부으면 숨도 쉴 수 없고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자칫 잘못하여 기관지로 물이 들어가면 가슴이 터질 듯이 아프고 죽을 것만 같다.

이렇게 여러 차례 물고문으로 의식을 잃었으며, 찬물을 끼얹어 정신이 들면 야전용 침대에 눕혀 놓고 군용 담요를 덮어 씨워 주물러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면 제정신이 들게 되는데, 젖먹던 힘까지 다 빠져 정상적인 사람이라 할 수 없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 시멘트 바닥에 쓰러져 어렴풋이 정신이 들었을 때 고문을 한 사람이 담뱃불로 내

다리를 지져보고서 다리가 꿈틀하니까 “아, 살았다,” “신경이 괜 찮다,” “김종대는 기갈이 세기 때문에 잘못하면 죽이겠다”는 등 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그런 다음,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수사관의 취조가 시작되었다.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앉아서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수사관이 진술 내용을 보지 못하게 손으로 가리고 쓰거나, 또는 책상 밑 무릎 위에 놓고 쓰는데 언뜻 보니 공산주의라는 글자가 보였다.

예감이 이상해서 “왜 나를 공산주의자로 만드느냐?”며 항의를 하니 “그래! 공산주의자가 아닌 것을 증명해 봐” 하고 고향을 치기에 “나는 국민학교부터 사범학교까지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받았고, 국민학교 교사로서 반공 교육을 시킨 사람이다. 어째서 내가 공산주의자냐!” 하고 다시 항의했다.

수사관이 “이 새끼, 너를 공산주의자로 만드냐? 이수병(사형)을 공산주의자로 만들지!” 하기에 “왜 이수병을 공산주의자로 만드냐? 나와 같이 사범학교를 나온 내 친구인데!” 하고 또 큰소리로 항의를 하니 “이 새끼, 건방지다” 하면서 눕혀 놓고 발바닥(발바닥은 아무리 때려도 표가 나지 않음)을 수없이 때린 다음 내가 앉았던 걸상을 없애 버리고 구두땀이통을 가져와 앉게 했다.

내 얼굴이 책상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진술서를 볼 수 없게 되자 수사관은 책상 위에서 마음 놓고 진술서 내용을 지시된 각본에 따라 써내려 갔다.

피의자 심문조사 내용은 보여 주지도 않고, 또 내용에 대한 설명도 없이 강압적으로 내 손을 잡아 무인을 찍어 임의성도 없

는 진술서가 만들어졌다.

검사취조는 검사(이규명)가 중앙정보부 남산분실로 차출되어 와, 수사관에게 취조받던 바로 그 장소에서 받았다. 검사취조 받기 전에 몽둥이를 든 수사관에게 지하실로 끌려가서 “검사 앞에서 부인하면 죽인다!”는 공갈협박을 받고 검사 앞에 앉으니, 검사가 이유도 없이 “이 새끼 건방지다!” 하면서 구둑발로 3번이나 정강이를 걷어 차 꺾질이 벗겨지고 피가 나며 퍼렇게 피멍이 들어 그 흔적이 몇 년이나 남아 있었다.

내 옆에는 “검사 앞에서 부인하면 죽인다”고 협박한 그 수사관이 몽둥이를 들고 입회(만약 부인하면 지하실로 끌려가 다시 고문을 받게 됨)하였고, 그렇게 진행된 검사취조는 극히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

두께가 10cm 이상 되는 검은 표지에 <민청학련 국가변란사건>이라고 쓰인 한꺼번에 묶은 공소장을 중간쯤 뒤져 겨우 김종대 이름을 찾아 본적, 주소, 생년월일, 직업 등을 묻고는 ①경북대학교 학생 선언문을 탐독했다, ②민청학련 선언문을 탐독했다, ③이수병(사형), 김용원(사형), 유진곤(무기 출소후 고문후유증으로 사망)과 같이 취술령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④김용원, 황현승, 이창복, 유진곤과 같이 김용원 집에 모였다, ⑤북한 방송을 청취하여 기록한 노트를 보았다는 등 다섯가지를 간단히 묻고는 상급계 끝냈다.

사실, 검사가 나의 활동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취조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것은 이미 중앙정보부에서 공소장을 조작하여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검사취조는 단지 날

짜나 장소 등 조작하다 엇갈린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중정 취조 때나 검사 취조 때 ‘인혁당’이나 ‘인혁당 재건위’라는 말 한마디 들어 본 적이 없는 나는 공소장 첫머리에서 인혁당 재건위 서울지도부 부원으로 되어 있고, 친형제처럼 가까이 지내던 이수병 선생과 김용원 선생은 완전히 공산폭력 세력으로 만들어 여정남을 통해 민청학련을 배후조종했다는 식으로 조작해 놓았다.

증거물이라고 압수하여 갖다 놓은 것은 기껏해야 트랜지스터 라디오, 시중에서 파는 일본책 몇 권, 북한방송을 녹취한 노트, 김대중의 『대중경제 백문백답』, 김지하의 「오적」, 학생선언문 등 뿐이며, 인혁당 재건을 위한 ‘행동강령’이나 ‘규약’ 등 반국가 단체를 구성했다는 증거물은 하나도 없었다.

유일하게 증거로 내놓은 것은 몽둥이 고문, 물고문, 전기고문으로 피의자를 초죽음상태로 만들어 수사관이 부르는 대로 쓰게 하거나, 수사관이 각본에 따라 써 넣어 만든 피의자 심문조서 뿐이다.

나에게 적용된 법은, 경북대학 학생 선언문과 민청학련 선언문을 탐독하고, 취술령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유신헌법을 반대하고 긴급조치를 비방하며, 민청학련을 지지한 것으로 긴급조치 1·4호 위반, 김용원 집에서 5명이 모여 반국가 단체를 구성했다고 하여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음모죄, 본 적도 없는 북한 방송 녹취 노트를 보고 고지하지 않았다 하여 반공법을 위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운이 좋아 전기고문을 당하지 않

았다. 그러나 사형당한 분들은 무자비하게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했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돌아 가셨다.

취조를 받기 위하여 끌려가다 서울구치소 보안과에서 김용원 선생을 만났는데 산 사람이 아니라 이미 반은 죽은 사람이었다. 초점없이 흐리멍텅한 눈으로 쳐다보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또 중앙정보부 대기실에서 이수병 선생은 전기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수병의 시신에는 검게 탄 반점들이 손톱 발톱 밑과 허리와 다리 부분에 나타나 있었는데, 이는 전기고문 등 지독한 고문을 받았음을 입증해 준다.

유진곤 선생은 전기고문으로 의식을 잃고 자신도 모르게 시멘트 바닥에 오줌을 질질 썼다고 나에게 말했다. 김용원 선생은 수없이 중앙정보부에서 고문받고 실신 상태에서 밤중에 엮혀서 감방에 들어 왔고, 우홍선 선생은 몽둥이로 다리 비틀기 고문을 받아 걷지 못하고 엉금엉금 기어서 대기실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으며, 또 고문에 못이겨 3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려다가 실패했고, 송상진 선생도 고문에 못이겨 자살하려고 왼손 동맥을 끊었으나 실패하여 상처 때문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하재완 선생은 얼마나 고문을 받았는지 창자가 항문으로 튀어나오는, 즉 탈장이 되어 재판을 받을 때도 바로 앉지 못하고 왼쪽 엉덩이로 앉았다가 창자가 튀어나오면 손으로 밀어 넣고 오른쪽 엉덩이로 앉고, 또 창자가 튀어나오면 손으로 밀어 넣은 뒤 왼쪽 엉덩이로 앉고 하는 반복된 행동을 뒤에 앉아서 바라보니 마음이 아팠다.

황현승 선생은 물고문, 전기고문으로 지금도 심장이 좋지 않

고, 이창복 선생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병원에 다녀야 했으며, 전창일 선생도 심장병으로 계속 약으로 살아가고 있다.

비밀 날치기 군사재판

날치기 군사재판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벌하고 공포 분위기였다. 법정 안과 복도에는 헌병들이 늘어서 있었고, 방청석에는 가족 각 1명씩만 방청하며 신문사 기자들도 참석시키지 않은 비밀재판이었다. 긴 결상의 피고인 두 사람 사이에는 교도관이 앉아서 얼굴도 못 돌리게 했고, 피고인 간에 눈인사조차도 못하게 했다.

1심 재판인 비상보통군법회의의 법정심리는 완전 분리심리로서 한 사람씩 재판관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았고, 그의 피고인은 법정에서 떨어진 대기실에서 자기 차례의 호명을 기다려야 했다. 법정심리 때 피고인이 상세히 진술하지 못하게 검사와 재판관이 제재했으며, 최후진술도 시간관계를 이유로 간단하게 하라고 독촉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인이나 변호사가 제기한 증인(김용원 선생 변호사가 여정남 선생을 증인 채택한 경우)이나 현장검증(김종대 경우) 등은 채택하지 않고 묵살하며 검사가 제기한 엉터리 증인만 채택(정만진 선생 경우)하였다.

1심 재판 때 피고인이 부인하면 다시 끌려가서 고문과 협박(우홍선 선생, 김용원 선생의 경우)을 당했고, 먼저 법정심리를 받은 사람이 부인하면 그와 연루되어 다음날에 법정심리를 받을 사람을 군사법정 옆 사무실로 불러내어 시인하는 각서(김종대와



▲ 1975년 4월 8일, 인혁당 사건 대법원 재판 모습

이창복 선생의 경우)를 강압적으로 검사가 쓰게 하였다.

2심 재판인 비상고등군법회의는 민청학련 학생들과 함께 48명을 좁은 법정에 한꺼번에 집어넣고는 인정심문을 하고나서 육군 대령 법무사가 “피고인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법정심리와 변호사의 반대심문, 그리고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생략한다”고 말하고는 며칠 뒤 합법적인 절차도 없이 법정심리, 변호사의 반대심문,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빼고 판결하였다. 그리하여 맨 앞줄은 사형, 두 번째 줄은 무기, 마지막 줄은 유기로 옛날 6·25 계엄령 하에서 재판하는 식으로 날치기 재판을 하였다.

사실은 고문으로 조작한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의 진실이 피고인의 입과 또 다른 경로를 통해 폭로될까 두려워 변호사 및 가족면회를 1년 동안 일체 허용하지 않은 채 빠른 시일 내에 해치운 것이다.

공판기록이 조작되었다는 것은 그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나의 공판기록까지도 조작하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완강하게 부인한 모든 것을 시인한 것처럼 영터리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가톨릭 인권위원회와 인혁당 진상규명위원회에 관계하는 이유정 변호사께서 밝혀낸 것이다.

박정희와 그 일파들은 유신독재 장기집권을 위한 일이라면 식은 죽 먹기보다 쉽게 사건을 잘 만들어 내었지만 그렇지 못한 일도 있었다.

예를 들면, 중앙정보부 6국장인 이용택이 피의자 유진곤 선생을 국장실에 불러 놓고 양담배(그 당시 양담배를 피우면 불법임)를 권하면서 “그 돈이 목선 타고 북에서 내려왔다고 한마디만 종이에 써라. 그렇게 하면 당장 석방시켜 용자도 해주고 사업을 크게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회유하는 것을 유진곤 선생이 완강하게 거절하여 이용택은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 돈은 강무갑 선생(72년 사망, 광산업)이 170만원을 이수병 선생에게 주었고, 이수병 선생은 유진곤 선생과 김달수 선생에게 나누어 맡긴 것인데, 간첩선을 타고 북에서 온 공작금으로서 간첩단을 만들어 국민에게 허위 보도하려고 한 것이었다.(유진곤 선생의 증언) 그 뒤 유진곤 선생은 또 혹독한 고문을 당했고, 이용택은 간첩조작으로 한 건 올려 승진할 계기를 놓쳐 한숨만 푹푹 쉬었다고 한다.

또 “22명으로는 국민에게 먹히지 않으니 50명 선으로 만들어라”라는 지시가 청와대에서 떨어졌는데 중앙정보부의 수사관들이 반발하여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한다. ‘인혁당재건위’의 수

자가 22명밖에 안되므로 반국가 단체로서는 숫자가 너무 적어 국민들이 믿어 주지 않을 것 같으니 더 많이 늘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수사관들이 “22명을 조작하는데도 50여일 동안 집에도 못하고 죽을 힘을 다 하였는데, 50명선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반발하여 취소된 것이다”라고 유진곤 선생이 손증덕에게 들었다 하며 나에게 말했다.

내가 처음 중앙정보부에서 취조받을 때, 이미 중앙정보부는 8명을 죽일 계획을 세워 놓고, 피의자 심문조서와 검사조서를 혹독한 고문으로 짜 맞추었고, 군사재판과 대법원도 중앙정보부의 지시에 따라 짜 맞추는 피의자조서만 가지고 판결에 임한 하수인에 불과했다. 그리고 8명의 사형집행도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이미 준비를 완료하여 놓고 대법원 판결이 나자마자 바로 다음날 새벽에 처형했던 것이다.

내가 석방된 뒤 윤보선 전대통령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박정희가 술만 취하면 울면서 8명의 사형을 후회했다는 것을 박정희 측근에게서 들었다고 한다. 그 악독한 박정희도 눈꼽만한 양심은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1975년에 추방당한 시노트 신부님이 추방된지 10년 만인 1985년에 돌아왔을 때 유가족과 연루되었던 동료들이 환영 식사를 신촌의 한정식 식당에서 한 적이 있었다. 그 때 내가 시노트 신부님에게 “시노트 신부님은 인혁당 연루자들을 과거에 알지도 못했고, 모든 사람들이 신문보도만 믿고 공산주의자들이라고 하여 등을 돌렸는데 왜 석방운동을 하셨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였다.

시노트 신부님은 우리들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 한국에 있는 미 정보책임자가 한국 중앙정보부 책임자에게서 보고를 받던 중에 양심적 민주인사들이 인혁당으로 조작되어 처형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괴로워하다가 마침 시노트 신부님에게 이야기하였고, 시노트 신부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구명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0.75평의 영어생활

74년 가을 고등군법회의에서 2심 재판이 끝나자 유기수들만 안양교도소로 이감되었다. 다행히 긴급조치 위반자(민청학련 및 인혁당재건위)들 끼리 한방씩 차지하여 1방에 수감되었는데 마침 대법원 재판이 가까이 오고 있었다.

누군가가 “우라도 그냥 앉아 있으면 안된다, 대법 출정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했다. 민청학련과 인혁당재건위 조작사건을 폭로하고 박정희 군사독재 타도를 위해서, 그리고 가능하면 대법 법정까지 점령하여 여론을 환기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이근성 학생(전 프레스미안 대표)이 대법 출정을 위한 투쟁계획을 세웠고, 전체 긴급조치 위반자들이 단식에 들어가면서 창문가에서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여 만 3일이 지난 뒤 대법 출정을 약속받고 단식을 끝냈는데, 대법 재판 전에 민청학련 학생과 반공법이 없는 긴급조치 위반자는 모두 석방되었으며, 그외 긴급조치 위반자들은 낙

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다. 그리고 그때 긴급조치 위반자 석방 당시 감방에 같이 있던 송무호 학생(현 사업)은 “인혁당 선생들을 비롯하여 전원이 석방 안되는 출소는 거부한다”고 큰소리로 외치고는 창살을 잡고 한 시간 정도 농성하며 버티기 하는 것을 내가 억지로 밀어내어 출소하게 했다.

75년 4월 9일 도예종 선생, 서도원 선생, 우홍선 선생, 이수병 선생, 김용원 선생, 하재완 선생, 송상진 선생, 여정남 선생 여덟 분의 사형집행 소식을 듣고서 그 다음날 감방 안에서 간단한 음식을 차려놓고 추모제를 지내면서 모두 하염없이 울며 허탈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시 재기를 위해 분발하면서 운동시간에는 축구를 많이 하였다. 간수부장 심관 아래 일반 재소자(소지)들과 자장면 내기 축구 시합을 하면 매번 우리 팀이 이겨 자장면을 따 먹었다.

물론 체력으로는 우리들이 약하지만 팀웍이 이루어져 있었고, 또 공격진에 이강철 선생(현 정치인), 김효순 선생(현 한겨레신문 편집국장), 임구호 선생(현 사업)의 활약이 컸기 때문이다. 날짜가 몇 개월 지나가니 또 긴급조치 9호 위반자가 슬슬 안양교도소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활기가 차고 재미도 있고, 또 서로의 교양을 쌓기 위하여 방을 몰래 옮겨 가면서 지내기도 했다.

하루는 갑자기 새벽에 호출당하여 징역보따리 싸들고 전주교도소로 이창복 선생(15년)과 이부영 선생(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그리고 이명준 선생(현 사업)과 함께 이감을 갔다.

전주교도소의 특별사 0.75평 방에서 완전 독거 생활이 시작

되었다. 운동장이라고는 15평도 안되며, 운동시간도 불과 15분 정도였다. 저녁에 누워서 천장을 쳐다보면 마치 관 속에 누운 시체와 같은 기분이고, 점심밥을 먹을 때 변소에서 구더기가 기어 나오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생존을 위한 강력한 옥중투쟁의 힘이 생기게 되고, 이부영 선생을 비롯한 긴급조치 위반범들은 모두 처우개선을 위한 단식투쟁을 시작하여 하나하나 개선해 나갔다.

먼저 창문을 막은 판자부터 철거하여 감방 안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조각난 하늘도 바라볼 수 있게 하며, 30분 이상의 운동시간 확보와 운동장 확장이 이루어지고, 부식 개선(상한 반찬과 질이 나쁜 반찬이 많았음)도 진척되었으며, 또 장기수들의 인권문제도 상당히 해결시켰다.

그리고 어느날 이명준 선생의 요청에 의해 ‘인혁당재건위’ 조작사건을 신문사를 통해 폭로하기로 하고 연루자들의 글을 모아 다시 정리하여 시꺼먼 똥종이(밑닥는 종이)에 깨알같은 글씨로 쓰기 시작했다. 하루는 밤 12시 가까이까지 이불을 덮어 쓰고 글을 쓰다가 간수에게 발각되어 다음날 기상과 동시에 검방까지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리 검방을 예상하고 쓴 종이 쪽지는 모두 과자 봉지에 넣어 실로 단단히 매어 변기 속에 숨겨 놓았던 것이다. 물론 그 뒤 냄새가 나지만 다시 꺼내어서 사용하였는데 이 글이 쓰여진 종이를 이명준 선생은 아주 작게 잘라서 침낭을 뜯어 그 속에 넣고 무사히 석방되었다. 그러나 석방되자 말자 요시찰자로서, 험악한 사회 분위기 때문에 공개하는데 실패했다.

그리고 또 한번은 성경책을 뜯어서 그 속에 넣어 전병생 선

생(현 목사)을 통해 무사히 밖으로 내어 보냈지만, 석방되자 곧 쫓기는 몸이 되어 도망다니다 성경책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한다.

인혁당이란 명칭은 사형당한 도예중 선생을 비롯하여 2~3명이 1964년도 인혁당 사건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중앙정보부에서 갖다 붙인 이름이고, 인적 구성을 보면 과거 4·19 이후 장면 정권 때 민주·자유·평화통일을 염원하며 합법적인 혁신운동을 한 분들이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을 철저히 반대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박정희는 중앙정보부에 지시하여 극악무도한 고문으로 인혁당재건위 사건을 만들게 했고, 전시에나 있을 법한 군사재판으로 정당한 절차도 없이 15년에서 극형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20년형을 선고받은 나의 경우는 박정희가 제 부하의 총알에 맞아죽은 다음 형집행정지로 8년만에 석방되었으나, 이수병 선생을 비롯한 여덟 분은 구속된지 1년도 못되어 형장에서 목숨을 빼앗겼다. 즉, 법을 빙자한 살인이다.

그렇다, 그가 흘린 피 한 방울 한 방울은
어머니인 조국의 대지에 스며들어 언젠가
어느 날엔가는
자유의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해방된 미래의 자식들은 그 열매를 따 먹으면서
그가 흘린 피에 대해서 눈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쑥스럽게 부끄럽게 이야기할 것이다

고 김남주 시인은 이렇게 역사를 낙관했다. 그는 “역사에서 위대한 것은 승리만이 아니다. 패배 또한 위대한 것이다”라고도 했다. 나 또한 여덟 분 고인들의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거나 패배가 아니라고 믿는다. 다만 나 스스로 물을 뿐이다. 한때 고인들과 뜨거운 가슴을 맞대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일 수 있을 것인지?

